



특집 _ “코로나로 재외선거 역대 최저...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할 시점”
 기획 _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세계 33위... ‘완전한 민주국가’로
 화제 _ 대륙별 한인연합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10월 창립 추진



2021. 3. 18.(목) 10:00 | 장소 : 국회 본청 220호(영상회의실)
 송영길·한병도·이형석·이해식·김민철 국회의원 주관 | 더불어민주당

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

동포재단 윤리헌장

2021년 3월 23일(화) 14:50 장소: 제주 본사 2층 대강당



“재외동포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과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되길”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

새하얀 눈이 서울 하늘을 덮은 2월의 겨울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아주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포 학생들이 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기획특별전 ‘세한(歲寒) 평안(平安)’을 관람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지 1년이 넘습니다. 여전히 그 끝은 보이지 않고, 그 사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닫은 횟수만 네 번, 전체 휴관 일수는 200일이 넘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건너와 학업에 매진하던 동포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은 1년이였겠지만, 그날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보낸 하루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가 시작된 지 150여 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동포사회의 한인은 이제 750만을 헤아립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성장하였고, K-팝과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유행과 함께 대중문화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상은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가슴 속에 고국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적 시간에 걸쳐 쌓인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가깝게는 대한제국부터 멀리 선사시대까지 수만 년을 이어 온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곳입니다. 천 년의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세상 모든 이에게 안식과 영감을 전해주는 반가사유상, 화려한 공예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신라금관, 순백의 아름다움과 원만한 심성을 담은 백자 달항아리, 정겨움과 해학이 가득 묻어나는 김홍도의 그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전시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지닌 깊이와 감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세계인들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연중 가장 큰 사업으로 추진되어오던 고국 방문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노력해 오신 재외동포와 그 후손들에게 국립중앙박물관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우리 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2 권두언	"재외동포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과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되길"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
04 특집	"코로나로 재외선거 역대 최저...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할 시점"
06 기획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세계 33위... '완전한 민주국가'로
08 화제	대륙별 한인연합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10월 창립 추진
10 글로벌 코리안	사단법인 추진하는 김점배 아·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 뉴질랜드서 노숙인 돕는 이익형 NGO 대표 자전거 3천대 北보내기 운동 펼쳐는 재미 동포 오득재
12 한민족 공감	한인 쿠바 이민 100년, 1천여 후손들 "한-쿠바 수교 희망"
14 유공 동포	푸틴 훈장 받는 성공한 러시아 고려인 2세 발렌틴 박
15 주목! 차세대	뉴질랜드 외교관으로 판타지 소설 출간한 김성은
16 동포소식	"아시아계 향한 차별과 싸울 것"... 미 교포학생 '유관순상' 외
19 동포 캘린더	'재외동포포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개소 외
20 지구촌 통신원 1	'에네켄' 기리며... 멕시코, 5월 4일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
21 지구촌 통신원 2	LA 폭동·유관순·K팝... 미국 학생들 한인사 배운다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청령 문화 다짐 윤리헌장 선포 외
24 유관단체 소식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공모 외
25 기고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강태운 목사·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 원장
26 재단공지	'23회 재외동포문학상' 성인·청소년·입양 부문 공모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외선거 역대 최저…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할 시점”

국회 토론회서 “참정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시급” 한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터넷·우편 투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송영길·한병도·이형석·이해식·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은 3월 18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주최 측 의원 외에 이재휘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한국정당학회 회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150명은 줌(Zoom)으로 함께했다.

코로나 시대 선거중지 피해 대응 위해 필요

기조 발제에 나선 고선규 대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의 쟁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우편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 선거가 중지돼 재외선거인의 50%가 투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위험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이므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 투표, 우편 투표, 귀국투표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교·공공주택 등 각종 기관·단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안건 투표 시 PC·스마

OECD 국가들의 재외선거 총괄표

국가명	대상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재외선거 투표 방법
		국내	재외	
스웨덴	총선, EU의회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직권	직권	공관/우편/대리
스페인	총선, EU의회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공관/우편
이탈리아	총선, 국민투표			우편
그리스	총선			
네덜란드	총선, EU의회선거			우편/대리/전자
노르웨이	총선, 지방선거			우편
대한민국	대선, 총선, 국민투표			공관
덴마크	총선, EU의회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공관
독일	총선, EU의회선거			우편
룩셈부르크	총선, EU의회선거			우편
멕시코	대선			우편
벨기에	총선, EU의회선거			공관/우편/대리
스위스	총선, 지방선거, 국민투표			우편
슬로바키아	총선			우편
아이슬란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공관
오스트리아	대선, 총선, EU의회선거, 국민투표			우편
일본	총선			공관/우편
체코공화국	총선			공관
터키	총선			국경투표소 투표
포르투갈	대선, 총선, EU의회선거, 국민투표	공관/우편		
폴란드	대선, 총선, 국민투표 공관투표			
핀란드	대선, 총선, EU의회선거, 지방선거	공관투표		
헝가리	총선, 국민투표	공관투표		
뉴질랜드	총선, 지방선거, 국민투표	신청	신청	공관/우편
미국	대선, 총선, 지방선거, 국민투표			우편/이메일/팩스
아일랜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국민투표			우편
영국	총선, EU의회선거			우편/대리
캐나다	총선, 국민투표			우편
프랑스	대선, 국민투표, 재외국민회 선거			공관/대리
호주	총선			공관/우편

트폰을 활동하는 등, 민간 분야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고 교수는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5년 지방선거에 인터넷 재외투표를 도입해 90%의 투표율 성과를 올렸고, 일본은 지난해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등, 각국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운동도 온라인화하는 상황이므로 투표 조작 등 위험 부담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 춘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재기 교수는 "1년도 안 남은 2022년 대선에 코로나 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참정권 보장과 투표를 제고를 위해 비대면의 투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뉴욕·워싱턴의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투표 개선 방안으로 85.6%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조진만 교수는 "민주주의가 참정권을 확대하는 역사적 경로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표율이 낮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논리로 재외선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큰 의미와 설득력을 갖기 힘들고 소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완전 실현 위해 도입해야"

중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동포들을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뿐만 아니라 공관 위주 투표소 설치보다는 유권자 거주 지역별 거점 투표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유학생·주재원 등이 포함된 재외선거인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인터넷·우편 투표 모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이 선거에서 다양하게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유독 투표에서만 도입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여익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각국 한인 거주지역과 공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인 거주지역의 한인회 등 주요 단체사무실을 투표 장소로 활용하는 거점 투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석 프랑스 한글학교협의회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구가 있으며 투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주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우편·전자투표를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여야 합의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요청과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며 "선거에서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프랑스타입 궁극적으로는 동포사회 출신 정치인이 나오도록 선거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지난 총선 재외선거에서 코로나19로 선거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절반이나 된 것은 공관투표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일"이라며 "영구명부제 도입이나 추가투표소 설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등 제기된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해 정치권부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 3월 18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코로나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3월 18일 국회에서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국회서 열린 재외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미국과 일본·중국 등 해외 거주하는 동포 150명이 줌(Zoom)으로 참여했다.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세계 33위... '완전한 민주국가'로

3년간 18계단 상승, 코로나19대응 한국 인식 제고 기여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51→45→39→33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한 해 사이 4계단 올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를 발표했다.

국가청렴도는 국가별로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며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한다.

평가받는 나라 가운데 공동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88점)가 차지했다.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77점·11위)과 일본(74점·19위)이 지속해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고 TI는 설명했다.

앞선 순위에 북유럽·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소말리아와 남수단(12점·공동 179위), 시리아(14점·178위)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공로민주공화국·아이티와 함께 18점을 받아 170위였다.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 청탁금지법 정착 인정

국가청렴도를 가능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



1

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는 베텔스만재단·세계경제포럼·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국제단체들의 원천자료가 사용된다.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상승은 공무원의 사익 목적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보는 배틀스만재단의 지속가능지수(SGI·62→70점), 정경유착 등 정치 부패를 따지는 정치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PRS·54→62점), 부패·뇌물 등을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지수(54→57점) 등 세부지표의 개선 때문이다.

다만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과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EIU)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C는 평균과 13점, EIU는 12.4점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 부패를 보는 PRS는 2012년 이후 정체됐다가 2019년부터 점수가 오르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 6.1점 낮다.

국가청렴도는 2016년 53점까지 떨어진 이후 매년 상승해 2020년에 60점을 돌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국가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청탁금지법'의 정착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 합류

최근 국가별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지수 2020'도 발표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순위는 2019년과 같지만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상대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점수를 산출해왔다. 모두 60개 항목으로 이뤄진 설문·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다.

평균 8점을 초과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6점~8점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 4점~6점은 혼합형 정권(Hybrid regime),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4단계로 구분한다.

2020년 보고서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 등으로 구분됐다. 완전한 민주국가는 조사 대상 167개국 총 인구의 8.4%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국 전체의 평균점수(5.37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전년보다 하락했다. 미국(25위)이 평균 7.92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으며 프랑스(24위·평균 7.99점)와 포르투갈(26위·평균 7.90점)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추락한 점이 예상 외 결과다.

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최근 성명에서 "최근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역시 준법·윤리경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부패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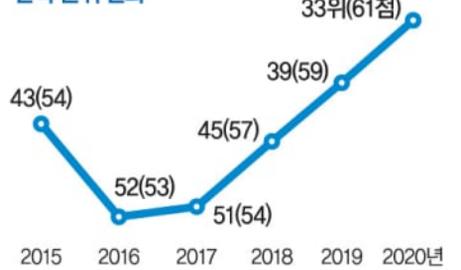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및 한국 순위 변화

2020년 전세계 180국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도



한국 순위 변화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

1.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공공기관 감사담당관들이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식을 개최했다.



2



3

대륙별 한인연합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10월 창립 추진

동포사회 권익신장, 모국과 상생 발전에 앞장서는 데 필요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가칭·이하 총연)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세계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단은 최근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총연 창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10월 열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창립식을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심상만·주점식 위원장,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노성준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김정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하정수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장, 김교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장과 재외동포재단에서 김성곤 이사장·이영근 기획이사·정광일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세계유대인의회 같은 역할하는 통합기구 필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유대인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인 '세계유대인의회'(World Jewish Congress)는 전 세계 유대인의 권익과 모국을 돕는 데 앞장서는 단체로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부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한인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결성에 대한 동포사회 요구가 높은 만큼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일부지만 한인회가 선거 때마다 몸살을 앓고 분란에 휩싸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와 화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인회장들의 교류의 장인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지역별·대륙별 한인회장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연합회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들이 위원으로 선정됐고, 고문으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심상만 위원장은 "동포사회 구심적 역할을 해 온 한인회는 170여 개국에 600여 개 있지만 통합단체가 없다 보니 권익 신장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총연은 거주국에서 한인 위상 강화는 물론이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9월까지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해 중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3



4

미주총연 분규 종식에도 적극 나선다

회장단은 분규·선거 등 내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도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단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재단은 동포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해 온 대륙별 한인회 온라인 간담회를 3월 중순부터 확대해 대륙별·지역별·국가별로 '찾아가는 동포재단' 모임을 열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은 3월 17일 화상으로 열린 미주지역 한인회장 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미국 동포사회 대표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미국 측 읍저버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을 선임했다. 재외동포재단이 미국 측 읍저버를 선임한 이유는 미국 한인회들을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6년간 분규로 인해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월 20일 별세한 남문기 전 23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에 미주총연의 새 출발을 위해 통합 중재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남 회장 별세 직후 3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3대 미주총연 회장을 지내신 남문기 미주한인회장협회장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면서, "얼마 전 우리 재단에 보내온 서한에서, 고인이 오늘날 미주총연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미주총연의 새 출발을 위한 중재를 재외동포재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보내 오셨다. 이를 계기로 미주 한인회가 서로 화합해 새로운 통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문기 회장이 동포재단에 보내온 서한에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추진위' 출범에 미주총연이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회장협회'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미주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재외동포재단에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사랑하는 전 세계 해외 동포, 그리고 미주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문기입니다.

지난 3월 2일 대륙별 총연 대표들이 모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하니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세계한인회대표회의의 유서한 기구로서 반드시 성공하여 명실공히 해외 한인족의 대표기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추진위에 미주 총연이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저 남문기도 미주 총연의 23대 회장으로서 총연의 오늘 날 사태에 대하여 깊은 책임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미주한인회장협회'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미주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까지) 이제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양 단체 (미주총연과 한인회장협회)의 회장선거를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통합 한 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의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에 위임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난 미주총연이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출범에 당당하게 참여하여 예전과 같이 한인족 동포사회의 리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1. 3. 8

미주한인회장협회 회장 남문기 올림

5

1. 재외동포재단은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와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2. 김성곤 재외동포재단이사장(왼쪽)과 재단 관계자들이 3월 18일 미주 10개 지역 한인회장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3. 재외동포재단과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들은 오는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한인회총연합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4.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유대인의회처럼 모국과 동포사회를 연결하고 정부가 못하는 일에 대신 나설수 있는 한인회 총연합회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서 환영사를 하는 이사장.
5. 고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미주총연 통합 중재를 재외동포재단에 요청한 서한



사단법인 추진하는 김점배 아·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 “5만여 한인 권익 신장·위상 제고·모국과 상생 앞장”

최근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사단법인화 추진을 결의한 김점배(65)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이하 아중동총연) 회장은 “5만 아중동 한인의 위상도 키우고 모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공신력 있게 추진하려고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모국과 한인사회 간 상생의 역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전까지 법인화를 마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법인은 동포 간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 거주국 정착 지원, 위기 상황 시 한인 긴급 구호 등에도 앞장선다.

아중동총연은 3년 전부터 아프리카 내 오지에 ‘평화의 샘물 파기’ 사업을 펼쳐 8개국 20개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도왔는데, 법인을 통해 모국 동참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문화 소개 등 아프리카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총연을 설립해 아중동 한인사회를 하나로 연결한 임도재 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모국과의 상생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부산에 법인 사무실을 내고 학술행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기업과 청년의 현지 진출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한인들은 현지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코로나19 백신 접종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에 전기압력밥솥 130세트를 전달했으며, 대구 적십자에 코로나19 관련 성금도 모금·전달했다.

20년째 오만 한인회장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여수수산전문대를 졸업하고 동원산업, 천양수산에서 근무했다. 1981년 오일쇼크로 오만 무스카트 한국해외수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만과 인연을 맺은 그는 연 매출 300억 원의 수산업체인 천관교역을 이끌고 있다.

뉴질랜드서 노숙인 돕는 이익형 NGO 대표 “취약계층 구호보다 자활 돕는 게 중요”

“봉사나 구제보다 연대와 나눔으로 이웃을 도우려고 시작한 일입니다. 가난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공동체 정신이 커지면 노숙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확신합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봉사단체 ‘낮은마음’을 세워 7년째 노숙인을 돕는 이익형(51) 씨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취약계층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숙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게 단체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낮은 마음’은 오클랜드 서부에 자리한 노숙인 임시시설 등에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음식 나눔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샌드위치나 조리된 음식을 1만3천500여 명에게 제공했다. 또 500여 점의 생필품, 응급 침낭 235개, 슈퍼마켓 구매 쿠폰 170장 등도



나눠줬다. 그는 “노숙인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 겨울로 매년 4~6명이 추위에 목숨을 잃었는데 응급 침낭을 공급하면서 3년째 동사자가 안 나오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IT(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하다 2003년 뉴질랜드에 이민한 이 씨는 2011년 현지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2014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낮은마음’ 활동을 시작했다. ‘낮은마음’은 이들에게 우선 음식이나 추위를 이겨낼 담요 등을 제공하지만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심어주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자활 프로그램으로 목공예를 가르치거나 향초를 만들어 판매 후 수익을 공동배분 하기도 하고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중고품 상점 취업 등을 앞선하고 있다.

올 초부터는 한인사회의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숨·쉽’이라는 문화공간도 열었다. 이곳은 한국 문학·인문 도서를 판매하는 비영리 서점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 자녀를 위한 공부방, 청소년 연극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늘면 음악·북 콘서트와 인문학 포럼도 열 계획이다.



자전거 3천대 北보내기 운동 펼치는 재미 동포 오득재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장 “남북관계 풀고파”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오득재 회장이 북한에 30만 달러 어치의 자전거 3천 대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전거로 화해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의지가 있다.

오 회장은 3월 5일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발대식을 열었다. 그는 행사에서 5만 달러(5천715만 원)를 쾌척했다. 이날 현장과 줌에서 8만 달러(9천144만원·자전거 800대분)를 모금하는 성과를 올렸다.

발대식에서는 자전거 전달 외에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계속하기 위한 ‘통일 3000 재단’도 설립했다. 관련 사이트(www.MyOneKorea.com)도 열어 ‘릴레이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오 회장은 “우리가 전달할 자전거는 어떤 이에게는 생계 수단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겠지만, 그보다는 십시일반으로 모인 동포애의 따뜻함을 더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들이 통일에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주요 협력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지역에 사는 동포들이 거주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 회장은 지난 2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와 함께 한반도 통일 필요성과 비전, 통일 한국의 국가 이미지 홍보에 앞장설 차세대 통일 역군인 ‘글로벌 통일 공공외교 대사’도 24명 배출했다.

2000년 미국에 이민한 오 회장은 거주종합치과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과 호남향우회장, 남가주 전남대 총동문회장 등을 지냈다. **창**



한인 쿠바 이민 100년, 1천여 후손들 “한-쿠바 수교 희망”

미국·멕시코로도 퍼져, 현지화 속에서도 한민족 정체성 지켜와

쿠바 전역에 1천여 명이 사는 한인 역사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 멕시코의 에네켄(웅설란) 농장으로 농업이민을 떠났던 한인 가운데 300여 명이 1921년 3월 25일 쿠바 마나티항에 도착한 것이 한인 쿠바 이주의 시작이다.

대부분 한인인 이들 가운데 멕시코인과 결혼해 낳은 후손과 현지인도 있었다. 선박용 밧줄 원료인 에네켄 농장의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쿠바 사탕수수 농장 취업을 희망했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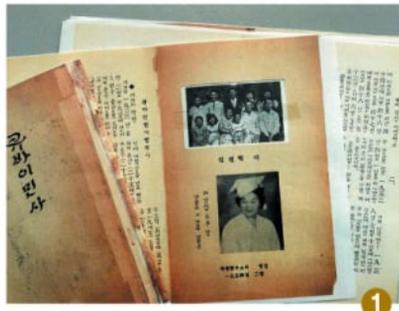
공교롭게도 1차 세계대전 후 경기침체로 설탕 가격이 폭락하여 원료인 사탕수수 농장이 대부분 파산하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에네켄 농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멕시코서 300여 명 이주... 에네켄 농장서 일하며 독립운동

쿠바 한인들은 미국 신문이나 재미동포들과의 서신에서 3·1운동 후 본격화한 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접했고 1923년 대한민국민회의를 결성해 독립운동에 나섰다.

대표적 인물인 임천택은 쿠바지회의 서기·총무·회장·고문을 역임하는 한편 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열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다.

모국 독립 열정은 쿠바에 흠어져 사는 한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됐고, 농장에서 힘겹게 일해 번 돈의 일부를 내놓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독립운동 자금



1



2

에 보탤다. 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글 교육기관을 세워 후손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도 가르쳤다.

하지만 1940년 한인들도 쿠바인으로 포함한 쿠바 헌법이 제정되면서 후손들의 현지화가 앞당겨졌다. 한인의 수가 워낙 적었으므로 이들은 현지인과의 결혼이 늘어났다.

한인 후손 중에는 쿠바 혁명에 가담하는 인물도 있었다. 대표적 인물로 임천택 씨의 아들인 헤로니모 임(임은조) 씨를 들 수 있다. 그는 혁명정부에 인사·법무 당국을 거쳐 산업부 인사담당관으로 당시 체 게바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앞장서 온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3명의 쿠바 한인 서훈자 가운데 지금까지 찾은 후손이 20명”이라며 “유공자 후손 찾기는 한인 역사 복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한인들은 쿠바 전역으로 퍼져 살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한다. 후손들

은 현지화해 한민족이라는 뿌리 의식이 약하지만 이주 3세대 이상의 고령 세대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다.

‘쿠바의 한인들’을 펴낸 한인 3세 마르타 임 김 씨는 “70대 이상의 한인이 사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김치뿐만 아니라 간장도 담가 먹는다”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해도 광복절을 기억하며 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인 후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한국어 보급을 꼽았다. 쿠바에는 수도 아바나 소재 한인후손회관과 아시아 박물관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고 있다.

미국·멕시코로 퍼져나가 '한-쿠바 수교' 희망

공식적으로 쿠바 한인 후손은 1천여 명이지만 미국·멕시코 등으로 이주한 후손까지 합하면 2천여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한인후손회는 추산한다. 6세대까지 나왔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도 20여 명에 이른다.

한인 후손들의 직업은 대학교수·의사에서부터 택시 기사까지 다양하다. 사회주의 국가인데다 낙후한 경제로 대부분이 빈부격차 없이 어렵게 산다. 쿠바인과 결혼해 현지에 정착한 정호현 한인후손문화원 간사는 "한인들 가정마다 미국이나 멕시코에 이민한 친척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쿠바는 주요 수입원이 관광산업인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한인들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친인척의 해외 송금으로 버틴다고 한다.

정 씨는 "일반 식료품 마트에서는 3~4시간 줄 서는 건 기본이고 그나마 재고도 없어서 근근이 버틴다"며 "재고가 풍부한 달러 전용 마트가 있는데 친인척 송금이나 인터넷 결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인후손회는 이민 100년을 기념해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모두 취소했다. 임 김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한인후손문화원에 소수만 모여서 조촐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기념식을 대체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최근 한국 이주 희망이 늘고 있다. 한류의 확산으로 모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재외동포재단은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초청 직업연수를 추진해 후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고, 이들 가운데 일부도 모국에 정착했다.

독립유공자인 이승준 씨 후손으로 한국에 정착한 엘리자베스 주닐다 산체로 씨는 "한인 후손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으로 망명해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류 바람도 불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80대 이상은 선조가 그리워하던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고 젊은 세대는 발전한 모국에서 더 나은 생활을 꾸려보고 싶은 마음에서"라고 밝혔다.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후손회장은 "쿠바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지만 한국 문화를 개방하는 등 교류의 문을 열고 있다"며 "우선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교도 해서 후손의 모국 완래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장]**

1. 쿠바 이민 1세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임천택 씨가 1953년 여름에 쓴 이민사. 책은 초기 이민 생활상과 독립운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2. 쿠바 마탄사스 주 마탄사스 시 엘 볼로 마을 입구에 미국 시애틀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한인 이주 기념비와 예네킨.
3. 쿠바한인후손회는 매년 수도 아바나 소재 한인후손문화원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4.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국민외교센터에서 열린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쿠바 한인 100년의 발자취'에 참석한 한인 후손 엘리자베스 주닐다 산체로 씨와 가족들.

푸틴 훈장 받는 성공한 러시아 고려인 2세 발렌틴 박

한-러 우호협력 공로 인정, 남북한 총영사 만남도 주선

러시아 연해주(州) 고려인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발렌틴 박(71) 연해주 고려인연합회 회장이 러시아 국가 훈장을 받았다. 러시아 정부 법률정보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3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발렌틴 박 회장에게 '우호 훈장'(오르덴 드루즈뵤)의 수여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발렌틴 박 회장이 국민 간 우호와 협력 및 상호이해 강화에 기여했으며, 러시아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대중화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우호 훈장은 러시아 정부가 공적이 있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국가 훈장이다. 한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신동빈 롯데그룹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받았다.

연해주 고려인연합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벌여온 발렌틴 박 회장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번에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발렌틴 박 회장은 최근 건강 상태가 나빠지며 현재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렌틴 박 회장은 연해주 지역에서 드물게 스스로 부를 일궈낸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1950년 태어난 그는 극동국립기술대학을 졸업하고 광산 등지에서 근무했다. 개방적인 태도로 기회를 엿보던 그는 옛 소련(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 직후 현지 건설업 등에 뛰어들었고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가 찾아온 1998년 그는 대다수 기업을 매각해야만 했다.

이후에도 언론과 부동산 등의 업계에서 사업을 유지한 그는 연해주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고려인 기업가로 통한다. 2008년



발렌틴 박 연해주 고려인연합회 회장(좌).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 포그라니치나야 거리 자매결연도시공원에 있는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우호친선비'.

에는 연해주 고려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취임,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발렌틴 박 회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소도시인 아르툼에 한국어와 춤 등을 가르치는 민족문화센터를 설립했다.

그는 또 2015년 '한인(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친선비'를 블라디보스토크의 옛 한인 거리에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렌틴 박 연합회 회장은 "우호친선비는 고려인들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여기(연해주)에 정착한 것과 1937년 강제이주의 아픔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호친선비에 새겨진 내용이 모두 러시아어로 표기되어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오자 지난해에는 친선비 원편에 한글 안내판도 설치했다.

발렌틴 박 회장은 친선행사를 열어 연해주 주재 남북한 총영사 간 만남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주선해 남북 간 평화교류에도 관심을 쏟았다. 2006년에는 한국과 북한을 교차 방문해 찍은 사진 등을 모아 꾸민 사진첩을 출간했다.

그는 2019년 올렉 코쾨마코 연해주 주지사의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창**

“한국 신화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 사로잡겠다”

뉴질랜드 외교관으로 판타지 소설 출간한 김성은

뉴질랜드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1.5세 작가가 5월께 미국에서 소설을 출간한다. 3살 때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한 김성은(현지명 그레이시 김·34) 씨는 2009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입부했다.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지만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 무엇보다 기뻐했다고 한다.

김 씨는 무역 정책, 무역 협상, 경제 외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외교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 왔다. 중국 베이징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는 3년 동안 뉴질랜드와 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문제를 담당했다.

베이징에서 근무를 마치고 뉴질랜드에 귀국할 즈음, 그는 ‘과연 지금 하는 외교관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이 일이 내 열망을 채워줄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딸을 출산하고 현재 오클랜드에서 육아 휴직 중인 김 씨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것이 소설 쓰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떨어진 별’(The Last Fallen Star)이라는 제목의 판타지 소설 3부작 시리즈 중 1편을 5월 4일 미국 디즈니 출판사에서 출간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도깨비, 천리마, 해태, 인면조 등 한국 신화를 현대인의 시각에 맞춰 재미있게 만든 판타지 소설이다.

마법을 꿈꾸는 주인공(입양 한인 라일리 오) 언니의 회생으로 가족 소속감과 사랑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또 자신의 헛된 꿈 때문에 위험에 빠진 언니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여행을 떠나고, 그 여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줄거리다.

그는 “현재 디즈니 채널이 이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전 세계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



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리즈 2편은 내년, 3편은 2023년 각각 출간될 예정이다.

김 씨는 어려서부터 책에서 삶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한다. 부친이 매주 딸을 도서관에 데려다 줬기 때문이다. 그는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게 된 힘의 원천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거의 모든 책에는 백인들 위주의 스토리였어요. 왜 우리 한국인은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 고민했죠. 우리 이야기도 충분히 세상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하는 대신 직접 글을 써서 우리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뉴질랜드에 온 자신의 경우처럼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읽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그가 소설을 쓰는 이유다. **창**

“아시아계 향한 차별과 싸울 것”... 미 교포학생 ‘유관순상’

뉴욕 나소카운티, 여고생 2명에게 제2회 유관순상 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확산한 반(反)아시아계 정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한 교포 여고생이 미국 지자체로부터 ‘유관순상’을 받았다.

미국 뉴욕 나소카운티는 3월 15일 카운티청사에서 제2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열고 호프 김(로커스트벨리고 11학년·17)과 핸너 김(미네올라고 10학년·16)에게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나소카운티는 지난해 미국에서 최초로 유관순 열사의 이름이 붙은 상을 제정하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공모전에서 2명의 학생을 뽑아 상을 준다. 장학금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시에서 제공한다.

호프 김은 지난해 흑인 차별을 반성하는 운동이 확산하는 흐



3월 15일 미국 뉴욕 나소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유관순상 시상식. 앞줄 왼쪽부터 김민선 미주한인인민사박물관장, 호프 김, 핸너 김, 로라 커렌 나소카운티장

름 속에서도 오히려 아시아계 차별이 번지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호프 김은 공공장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정신이 궁극적으로 광복의 씨앗이 된 것처럼 일단 혼자서라도 미국 내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핸너 김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불붙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관해 글을 썼다.

로라 커렌 나소카운티장은 “유관순 열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며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영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유람선서 ‘코리아 페스티벌’... 외국인 7만명 참가

한식·한복·전통놀이 한국문화 체험, “한류 열풍 이어갈 것”

싱가포르를 출항해 물라카 해협까지 운항하는 호화유람선 ‘월드 드림호’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에 싱가포르인 등 각국 주재 외국인 7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30일 한인신문 한나프레스가 전했다.

월드드림크루즈사가 운항하는 싱가포르 국적 월드 드림호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물라카해협까지 주 3회 운항됐다. 모항인 싱가포르항을 출발해 인도양 관문인 물라카해협까지 갔다가 1박 2일 일정으로 귀항한다.

30일 마지막 출항한 월드 드림호 선상에서는 매회 ‘코리아 페스티벌’을 선보였다. 1회 탑승객은 최대 7천명으로, 그동안 최대 7만 명이 이 축제를 즐긴 것으로 이 신문은 집계했다.



싱가포르 유람선 ‘월드 드림호’ 선상에서 펼쳐지는 한복패션쇼 장면.

탑승객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복 패션쇼를 관람하며 한국의 전통 놀이를 체험했다. 또 헤어·피부 미용, 한국어 교실, 최신 한국댄스, 종이접기 등을 배웠다.

이건기 한나프레스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싱가포르인과 각국 주재 외국인들이 많이 탑승했다”며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온 승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고유한 문

화를 전파하게 돼 무척 기쁘다. 행사가 싱가포르 내 한류 열풍을 이어가도록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드 드림호 첫 출항에 맞춰 열린 개막식에는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 신용섭 싱가포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등과 싱가포르 주요 언론사, 각국 주재 언론사 등이 참가했다.

호주 한인 청년들 ‘철인 3종 전국대회’서 1·2위 차지

‘트위드 엔듀로 철인 3종 대회’서 남자팀 우승·준우승

재외동포들이 호주의 전국 규모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월드옥타 브리즈번지회에서 활동하는 이규황 씨는 설승진·권오영 씨와 한 팀을 구성해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일대에서 열린 ‘2021 트위드 엔듀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 우승했다. 방재승·이재용·지창훈 팀도 2위에 올랐다.

2015년 시작된 이 대회는 3명이 한 팀으로 출전해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우열을 가른다. 호주에서는 철인 3종 경기가 남녀노소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호주 전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규황 씨는 인터뷰에서 “호주 언론에서 한인들이 이번 대회를 휩쓸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



호주 철인 3종 경기서 우승한 한인 권오영(왼쪽부터)·이규황·설승진 씨.

진다”며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한인 사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애국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5년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들어와 취업에 성공하고, 현재 호주 대형 광산 플랜트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또 세계한인무역협회 브리즈번지회에서 유학생 및 해외 취업자들의 현지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 차세대 멘토로 봉사하고 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자전거, 마라톤 3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다.

코로나에 지친 브라질 ‘한글의 미소’로 위로한다

한국문화원서 동포 작가들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 브라질에서 한글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인동포 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5월 중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개최한다.

문화원이 시행한 한국문화예술 전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브라질 한인캘리그래피협회가 다양한 작품을 마련한다. 2017년 20여명의 한인들로 결성된 캘리그래피협회는 각종 한류 행사장을 찾다니며 한글의 멋을 알리고 있다.

김완국 문화원장은 “기획력과 작품성, 한-브라질 문화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개



브라질 한인 캘리그래피협회가 브라질 한류팬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캘리그래피 체험 행사를 펼치고 있다.

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하반기에도 공모를 시행해 한인 동포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현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5개월간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그린 그래픽 노블 ‘풀’ 특별전을 시작으로 ‘상파울루 온라인 국제영화제’ 참

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음악을 나누다, 생명을 나누다’를 운영했다.

또 남미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 ‘K-엑스포(Expo) 2020’과 ‘우리 술 칵테일 경연대회’, ‘브라질 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했다.

김 모이세이 러시아고려인연합회 고문단 의장 자서전 발간

고려인의 정체성 확립 도우려고 역사와 전통문화 소개

김 모이세이 러시아고려인연합회고문단 의장이 '고려인의 운명, 한국전통과 계보'란 이름의 자서전을 최근 발간했다.

1945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출생한 그는 모스크바문화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그는 1972년부터 2009년까지 소련과 러시아연방 문화부에서 40년 가까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이후 러시아고려인연합회고문단 의장으로서 고려인 동포의 권익 보호와 한-러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

구 소련과 러시아 정부는 김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소련 문화부 훈장(1990), 소련 문화부와 문화 근로자 노동조합 중앙위원회 표창(1987), 러시아 지역발전부 표창(2005), 러시아 문화부 표창



(2010), 러시아 대통령상(2017) 등 다수의 상을 수여했다.

자서전은 앞부분에 개인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친지들에 대해 서술했고, 뒷부분은 한국과 고려인동포의 전통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한반도가 분단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북한 간에 문화가 많은 부분이 달라졌듯이 고려인동포도 남북한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자서전 출간 기념행사는 3월 24일 모스크바 시립민족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자서전은 나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작업임과 동시에 고려인동포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인 증오 멈추라” 뉴질랜드서 한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멜리사 리 의원 “뉴질랜드는 이민자의 땀과 노고로 건설” 강조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아시아인 증오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뉴스허브 등 뉴질랜드 매체들에 따르면 아시아인 증오에 반대하는 수백여 명의 시민들은 3월 27일 오클랜드 시내 아오테아 광장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 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질랜드 국민당의 한인 멜리사 리 의원을 비롯해 중국계 나이시 첸 노동당 의원, 폴 영 오클랜드 시의원 등도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멜리사 리 의원은 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해결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뉴질랜드가 이민자들의 땀과 노고에 의해 건설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광장에서 열린 아시아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장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이 처음 이곳에 온 게 1842년"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측은 뉴질랜드 내 아시아인들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깊은 상처와 충격,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는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단지

피부 색깔만을 이유로 아시아인 형제자매들이 받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인들은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질랜드도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를 통해 뉴질랜드의 아시아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포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개소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권유현)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607호에 새 동지를 마련하고 4월 5일 헌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양창영 전 국회의원,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했다. 권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역량을 높이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럼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토대 한인학생회, 김치·한복 알리는 카드뉴스 배포

캐나다 토론토대 한인학생회(UTKSA)는 최근 김치와 한복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영어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포하고 있다. UTKSA는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김치와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역주장을 펴는데, 각국 유학생과 재외동포들이 중국의 문화·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치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한복에는 중국 전통의상 ‘한푸’에 없는 오조룡원보(금실로 발가락이 5개인 용을 수놓은 보)가 있다고 소개했다.

다큐 사진작가 김지연, ‘재외동포 20년 취재기’ 발간

중국·일본·러시아 등에서 소외된 재외동포의 삶을 카메라에 담은 김지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최근 20년간의 취재 기록을 모아 ‘코리안 디아스포라 (눈빛)’를 발간했다. 김 작가는 중국 옌벤의 탈북자,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사할린 한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의 삶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김 작가는 “강제이주와 재이주를 겪으면서도 공동체 정신을 지켜온 고려인의 모습에 감동했다”며 “잊힌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엄연한 우리의 외연이기에 역사로 남기기 위해 계속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독한인간호협회, 고령 파독근로자에 생필품 전달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문정균)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고령의 파독근로자 210명에게 쌀 등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을 최근 전달했다. 문정균 회장은 “연 4회 계절마다 보내드리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Lockdown)으로 서로 왕래할 수 없어 외롭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번엔 한 번 더 추가해 생필품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파독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방침과 백신접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지원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기금 1만2천670달러를 3월 29일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이사장 존 킬러리)에 기탁했다. 기금은 미시건, 유타, 라스베이거스, 플로리다 등 15개 지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다. 미시건한인회와 6.25참전용사들도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추모의 벽은 워싱턴D.C.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설치되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 6천590명과 미군에 배속돼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약 8천100명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



북경한국여성전문인회, 한인 유학생 100명에 김치 지원

북경한국여성전문인회(회장 우영선)는 3월 20일 중국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김치 담그기 체험 및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우영선 회장을 비롯한 북경한국여성전문인회 회원들과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 북경한국유학생총연합회 이창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장단, 교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치 200포기를 담그고,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중앙미술대, 북경사범대, 북경외국어대, 북경여언대 등 총 10개 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 100명에게 김치를 나눠줬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에네켄’ 기리며... 멕시코, 5월 4일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

연방 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 “양국 우정과 협력의 상징”



2019년 4월 3일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 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날’을 제정했다 (위). 멕시코 메리다 멕시코한인이민박물관에 있는 1세대 이민자들의 사진들.

멕시코가 매년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 하원은 3월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한국 이민의 날 제정 안건을 찬성 383표, 반대 12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연방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어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독립운동 정신 등을 기리고 양국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이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연방 차원에서 특정 국가 이민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장이기도 한 여당 국가재건운동(모레나) 소속의 다비드 바우티스타 하원의원은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역사적이고, 매

우 중요하다”며 한국 이민자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바우티스타 의원은 올해가 한인 이민 116년, 양국 수교 5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6년이 되는 해임을 설명하며 한국 이민자의 날이 “양국 우정과 협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5월 4일이라는 날짜는 116년 전인 1905년 1천여 명의 한인들이 멕시코에 처음 발을 디딘 시점을 고려해 정해졌다.

당시 멕시코 이주 노동자 모집 광고를 보고 모인 1천33명의 한인은 4월 영국 일포드호를 타고 출발해 5월 8일 무렵 멕시코 살리나쿠르스항에 도착한 후 기차와 배로 이동해 15일 유카탄주 프로그레소항으로 갔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유카탄반도 곳곳의 에네켄(선박용 로프 등을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 농장으로 흩어져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에네켄’ 또는 ‘에니깁’으로 불

리는 1세대 멕시코 한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대한민국민회 메리다 지방회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송무학교를 세웠으며, 고국에 독립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현재 멕시코와 쿠바 곳곳엔 이들의 후손 3만여 명이 살고 있다. 고국과의 오랜 단절 탓에 외모도 언어도 현지화했지만 여러 도시에서 한인후손회를 조직해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한인 후손들이 사는 유카탄주 메리다시와 캄페체주 캄페체시, 그리고 유카탄주 전체가 지난 2019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주멕시코 대사관은 이어 연방 차원의 한국의 날도 제정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했고, 2019년 상원에서 한국 이민의 날 제정 안건이 상정된 지 2년여 만에 이번 에 결실을 보게 됐다. **장**

LA 폭동 · 유관순 · K팝... 미국 학생들 한인사 배운다

캘리포니아주 인종학 학습 지도안에 '한국 이해' 채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의 전개 과정,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삶, 세계로 뻗어나간 K팝의 성과 등 한인 관련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됐다.

3월 30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 장태한 교수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인 이민사를 담은 인종학 수업 지도안을 승인했다.

교육위원회는 한인 사회의 논의를 거처 장 교수가 마련한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과 인종 간 관계'를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각 교육구를 인종학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커리큘럼을 반영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수업 지도안은 한인들이 LA 폭동 당시 어떻게 희생양이 됐으며, 어떤 소외와 차별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서술했다.

특히 당시 주류 언론이 미국 내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과 경찰의 폭력 행위를 외면한 채 한인·흑인 간 갈등을 부추겼고, 한인 사회가 LA 폭동 이후 각성해 정치,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어 한인사 요약에서는 1903년 1월 하와이 이주부터 시작해 지난해 2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 달성 등 주요 역사적 사실이 포함됐다.

인물로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기를



LA 폭동 당시 약탈로 파괴된 한인 상점 모습

을 닦은 도산 안창호 선생 ▲미군 최초의 아시아계 대대장이자 6·25 전쟁 영웅인 김영옥 대령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다이빙 2연패를 이룬 한국계 수영 영웅 새미 리가 포함됐다.

한인 독립 운동사의 경우 두 부분으로 나눠 우드로 윌슨의 민족차별주의와 1919년 3·1운동을 다루고 이어서 20세기 초 한인사회의 독립운동과 그 의미를 다뤘다.

특히 학습 지도안은 3·1 운동 당시 일제에 의해 숨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열사를 꼽고 "죽을 때까지 일제의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고 서술했다. 이어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 김구 선생을 꼽았다.

학습 지도안은 "독립운동을 통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했다"며 한국의 광복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다.

대중문화 부문에선 K팝의 인기와 그 영향력을 배우는 것이 학습 목표로 제시됐다.

지도안은 학생들이 K팝 뮤직비디오의 음악과 가사, 패션, 댄스 등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면서 방탄소년단(BTS)의 '보이 워드 러브' 뮤직비디오를 참고 자료로 들었다.

장 박사는 "캘리포니아주 인종학 커리큘럼에 미주 한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차세대 한인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현지 교사들에게 더욱 상세한 수업 자료를 설명하는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재외동포재단, 청렴 문화 다짐 윤리헌장 선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3월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본사에서 전 임직원과 함께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윤리경영 의지와 시대적 가치 등을 반영한 '윤리헌장'을 새롭게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실천 의지를 대외에 알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윤리 헌장에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민족 화합과 인류사회에 기여함이 천명되었다.** 그리고 **공정·청렴한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로 아름다운 지구 지키기, 고객 만족 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이 담겼다.

이날 오후 열린 선포식에서 김성곤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재단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전하는 윤리 교육을 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해 고국과 동포사회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3월 23일 오후 제주도 본사에서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좌측)과 김철수 노숙대표위원.

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간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선포식을 진행했다.

'코리안넷' 기자들 동포 소식 풍성히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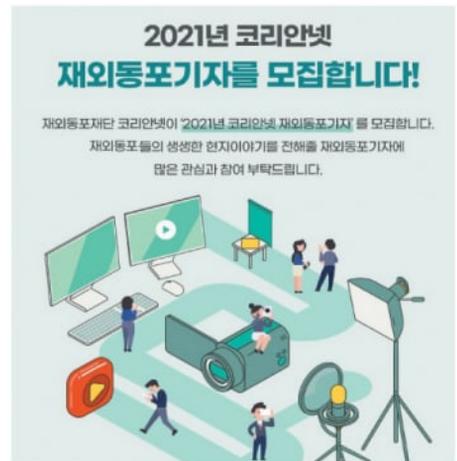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보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 기자를 선발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 세계의 재외동포의 다양한 이야기와 현지 정보를 풍성히 전하자는 취지다.

한국어로 콘텐츠 기획력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추고, 매체 활용 능력과 더불어 영상 제작과 활발한 SNS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또는 단체 20명을 선발해 4월부터 9개월간 소정의 취재비를 받으며 '코리안넷' 기자로 활용한다.

이들은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알리고, 재단이 부여하는 월 또는 분기별 주제 미션을 취재해 코리안넷에 알린다.

취재기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보 취합 재가공, 인물·현장 인터뷰, 정보 성격의 칼럼, 리포트, 촬영 편집 동영상 등을 콘텐츠로 올리게 된다.

재단은 기사 내용과 분량에 따라 소정의 취재비도 지급한다.



재외동포재단, 국제평화재단과의 학술·교류 MOU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학술·연구 지원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평화재단(이사장 김성환)과 3월 2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강윤모 기획실장, 국제평화재단 김성환 이사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 지원 및 학술 세미나 개최 협력, ▲학술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정보 공유, ▲양 기관 국제교류사업 분야 상호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양 기관이 원만히 협력하여, 내국민과 재외동포, 그리고 전 세계인의 지속적인 화합과 평화에 기여하고, 재외동포 관련 학술·연구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3월 24일 국제평화재단과 재외동포 연구·국제교류 등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국제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에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이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나성의 가면 김완중(컬처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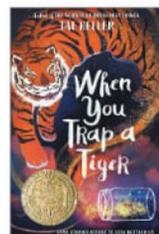
30년 경력 외교관의 눈으로 본 한인 사회의 이야기를 펴냈다. 지금의 재외동포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있게 한 역사속의 재외동포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저자는 외교관으로 지내며 만난 미국 LA지역의 독립운동의 아버지 안창호 선생 이야기와 대한인국민회, 쿠바 한인들의 이야기 등을 다뤘다. 또한 한인들이 남모르게 겪는 정체성의 고뇌와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현 재외동포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2003년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물 복원공사 중에 발견된 태극기와 대한민국독립선언서의 사진을 부록으로 실어 한국 밖에서도 고군분투했던 동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When you Trap a tiger Tae Keller(Paperback)

재외동포 작가의 작품 'When you Trap a tiger'가 미국 아동청소년 도서계의 노벨상인 뉴베리 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작품은 한국계 소녀 릴리와 그의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한국 민화에 나오던 신비한 호랑이가 나타나 릴리가 할머니의 비밀스럽고도 안타까운 과거를 멋지

게 밝혀내는 작품이다. 작가가 한국과 미국 양 국가 속에서 느꼈던 문화적 영향들이 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요소로 작품에 반영되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국내 독자들도 우리의 정서와 맞닿은 소재로 아동들의 상상 속에서 국가와 문화를 뛰어넘는 친숙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독립운동과 대한적십자 박환(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연구했던 박환 교수가 인도의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연구를 책으로 발간했다. 대한제국은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였으나, 일본은 조선본부로 편입하였다.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대한적십자회를 조직하여 무력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저자는 적십자인들의 활동이 독립운동을 넘어 평화운동 차원에서 독립운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한다. 무장독립투쟁 중심으로 알려졌던 독립운동의 평화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인도적인 차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겨보자.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공모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오는 10월 5일 '제15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분야에서 유공자 포상 공모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유공자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한다. 외국 국적자는 재외동포에 한정된다.

부문은 국민훈장(무궁화·모란·동백·목련·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외교부 장관) 세 부분으로 공적 기간 자격 기준은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이는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훈장 7년 이내, 포장 5년 이내, 표창 3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 중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이거나 임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민, 기관, 단체, 기업 등 제

한 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마감은 4월 30일이며 수상자를 10월에 외교부 상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를 참조하거나 외교부 재외동포과(overseas@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외교부는 오는 10월 5일 '제15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유공 재외동포 포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여운기 전 주가나대사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취임

여운기 전 주가나 한국대사가 한·아프리카재단 2대 이사장으로 3월 12일 취임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2018년 6월 출범했다.

여운기 선임 이사장은 30여 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주가나대사, 주아일랜드대사 등을 역임했

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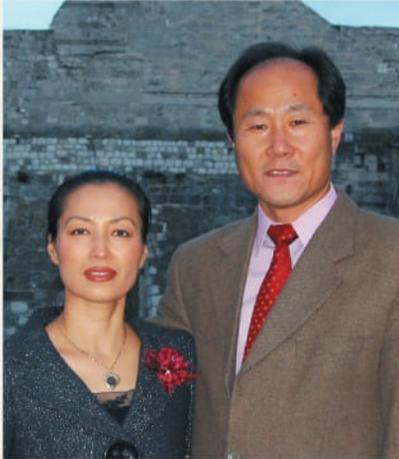
이날 취임식에서 여 이사장은 "출범 4년째를 맞이한 재단이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명실상부한 아프리카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간 기업이나 개인·시민단체, 정부 등이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꼭 찾는 소통 창구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재단 발전 청사진으로 ▲아프리카



카 관련 종합 지식정보 허브 역할 강화 ▲유튜브 등 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아프리카 각국 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아프리카 현지 싱크탱크와 국내 연구기관 공동 연구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강태운 목사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 원장

양국 분쟁은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도 핵심

30년 넘게 분쟁의 한 복판에서 재외동포로 살다보니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반 이스라엘 저항운동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 3년간 베들레헴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매일 저녁 총격전을 벌이고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와 전쟁터가 되도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는 모습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저녁에 치열하게 싸우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국경 검문소를 지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는 하루 12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국경을 넘어와 3D 직종에서 일하고 팔레스타인으로 퇴근한다. 이들의 값싼 노동력은 이스라엘 경제를 받치는 한 부분이다. 또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소비제품의 주요 고객도 팔레스타인이다.

팔레스타인의 1인당 GDP는 약 1천400달러에 실업률은 약 25%로 이스라엘 GDP 약 3만 달러와는 비교도 안된다. 경제 인프라도 부족하고 대학을 마쳐도 고용의 기회를 얻기 힘들고 급여도 적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스라엘 검문소를 넘어 이스라엘로 간다.

국제 언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분쟁의 관점에서 보도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사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분쟁을 하면서도 더불어 살고 관계를 지속하는 지역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히 분쟁 지역으로만 보지 말고 왜 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평화를 이끌어 낼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눈여겨보고 연구해야 한다.

베들레헴은 온 인류에게 중요한 장소

450평대지 위에 연건평 650평의 5층 규모로 베들레헴에 세워진 한국문화센터는 평화를 노래하는 장소다.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이미지와 문화를 통해 양측 간 평화의 가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 한국어 배운 아이들이 한국 유학 후 돌아와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필요한 인재로 자리 잡아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국 이권이 우선이고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타국과 더불어사는 데 힘써야 한다.

문화 강국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역할을 깊이 성찰하고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내외 동포의 강력한 연대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3회 재외동포문학상' 성인·청소년·입양 부문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성인 3개 부문(시·수필·체험수기)과 청소년 글짓기 2개 부문(초등생·중고생), 입양동포 1개 부문(입양 수기) 등 총 6개로 나눠 진행한다.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동포는 국적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다. 역대 대상(성인)과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에 응모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경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부문별 수상작 34편과 본심 진출작·입상작을 많이 배출한 한글학교 2개교를 뽑아 대상 300만 원 등 4천여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999년부터 해온 문학상 공모는 해마다 응모작이 늘면서 재외동포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청소년 부문 응모 주제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아'로 흥익인간 정신으로 해외에서 실천한 활동과 경험을 담은 글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응모하면 된다. 문의는 재단 홍보문화조사부, ☎+82-2-3415-0112

재외동포 문학상

2021. 4. 1.^(목) ~ 5. 31.^(목)

한국시간 기준: 10:00 ~ 20:00 (https://www.korean.net)

응모자격

성인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부(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부(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입양동포 부문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공모부문·주제

성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시, 단편소설, 자유
체험수기: 이민자 정착 과정 중 겪은 분인, 가족, 민중의 체류감

청소년 (중고등, 초등):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아'
한글 학습-한국문화 체험 경험담
전자 생활에서 보고 느낀 생활상
주요문제로 세계시민(글로벌 코리아)인 나의 친구들
귀하 자유 주제

입양동포: '내가 나누고 싶은 입양이야기'
입양(입양동포 또는 자선)인간의 경험담
※ 입양자 종교문화 외교 관련 및 입양사정을 면서 작성 후 문화체육관광부(www.mvc.go.kr)에 제출한다.



시상내역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입양동포(입양수기)
대상: 상(9명당 3천) · 300만원, 상패	대상: 상(9명) · 300만원, 상패
우수상: 상(9명당 2천) · 200만원, 상패	우수상: 상(9명) · 200만원, 상패
佳作: 상(9명당 1천) · 50만원, 상패	佳作: 상(9명) · 50만원, 상패

청소년(중·고등 / 초등)

한글학교
대상: 상(9명당 3천) · 300만원, 상패
우수상: 상(9명당 2천) · 200만원, 상패
佳作: 상(9명당 1천) · 50만원, 상패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21. 4. 1. ~ 5. 31. (한국시간 기준)

접수처: 재외동포재단 문화조사부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를 통한 접수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를 통한 접수

접수방법: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를 통한 접수

이달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4월 2일 서울시 중구 소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방문해 한경구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김 이사장은 한 사무총장과 전 세계 재외 한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추진 등을 협의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5일 아프리카·중동 지역 한인회장과 '찾아가는 동포재단'(이하 찾동) 화상간담회를 실시했고, 3월 17일에는 미국 주요 10개 지역 한인회장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4월 7일에는 아시아지역 한인회장단과 첫 찾동 행사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가 심각한 동포를 위해 재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인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